

##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 5.18 광주민중항쟁 35주년 기념예배 35th Anniversary of May 18 Gwangju Uprising

"새로운 5.18 광주항쟁 정신으로"

"Renewing the Spirit of May 18 Gwangju Uprising"



일시: 2015년 5월 17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Assembly Hall, Judson Memorial Church

tongkyun@gmail.com / 917-622-2471

<http://www.judson.org/TheLeastofTheseChurch>

**5.18 광주민중항쟁 35 주년 기념예배**  
**35th Anniversary of May 18 Gwangju Uprising – May 17th 2015**

**추모의 묵상**----- **다함께**  
 Moment of Silence All Together

**5.18 항쟁정신의 촛불을 밝히며** ----- **다함께**  
 Lighting the Spirit of May 18 Uprising All Together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One Spirit, One Song (Poem) All Together

**“학살 2” (시, 김남주, 낭독: 김웅 & 진)**  
 "Massacre 2" (Poem by Namju Kim, Recited by Danny Kim & Jin Noh)  
**“누이의 헌혈가” (시, 김해화 – 낭독: 이세연)**  
 "The Song of Sister Giving Blood" (Poem by Haehwa Kim, Recited by Seyeon Lee)

**하늘(역사와 민중)뜻 나누기** ----- **김동균목사 & 청년활동가 예술가들**  
 Sharing the Will of History and the People Rev Kim & Young Adult Artists and Activists

**화두: "새로운 5.18 광주항쟁정신으로!"**  
 Theme of Reflection: "Renew the Spirit of Gwangju People's Uprising!"  
**나눔의 이야기: 창세기 4,9-10/ 예언자 아모스의 선언 5,24/ 마태 5,10/**  
**청년활동가와 예술가들의 영상과 몸짓**  
 Today's Shared Story: Genesis 4,9-10; Amos 5,24; Gospel of Matthew 5,10;  
 Multi-media Oral History Performance by Young Adult Artists and Activists

**한 마음 한 노래 (시)** ----- **다함께**  
 One Spirit, One Song (Poem) All Together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시, 김준태 – 낭독: 제이윤)**  
 "Oh, Gwangju, the Crucifix of our Country" (Poem by Joontae Kim, Recited by Jay Yun)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One Spirit, One Song (Song) All Together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민중항쟁노래 – 다함께)**  
 "Marching for our Beloved" (Song of Gwangju People's Uprising - All Together)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Our Prayer towards the World All Together

**세상으로 향하는 5.18 광주항쟁정신** ----- **청년풍물패와 다함께 행진**  
 Heading Out to the World with Our Gwangju Spirit March Led by Poongmool Procession

**“새로운 5.18 광주항쟁정신으로 – 워싱턴스퀘어공원에서의 행진”**  
 "Renewing the Spirit of May 18 Gwangju People's Uprising" - March and Rally around Washington Square Park

## 한 마음 한 노래 (시 Poem)

### 학살 2

#### "Massacre 2"

오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대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낮이었다  
낮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군의 군인들을  
낮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낮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노골적인 낮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별집처럼 쭈셔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시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물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 낮이었다  
  
낮 12시  
하늘은 핏빛의 붉은 천이었다  
낮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무등산은 그 옷자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  
버렸다  
낮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뒀다

아 게르니카의 학살도 이리 처참하지는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리 치밀하지는 않았으리

(시, 김남주 Poem by Namju Kim

낭독: 김웅 & 진 Recited by Danny Kim & Jin Noh)

## 한 마음 한 노래 (시 Poem)

누이의 헌혈가

"The Song of Sister Giving Blood"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조국의 총칼에 찢겨  
오월 푸르름 한가운데가 질퍽이도록  
뜨거운 피를 쏟으시다가  
뜨겁던 가슴이 식어간다고  
우리들의 도시가 외쳐대는 오후에  
당신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피어린 거리를 지나 찾아간  
대학병원은  
우리들의 주검과 신음으로 출렁대고 있었어요

오빠 보셨지요  
제 가느란 팔목에서 흘러나가던 영산강의 마음  
저의 꿈은 먼 훗날 착한 지어미  
하늘처럼 눈이 맑은 아들 딸 낳아  
이 땅의 자유를 지키는 아들이 되고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는 것  
그 꿈도 식지 않고 흘러 나가는 것  
오빠 보셨지요

지금도 들리는 총소리 총소리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누구의 가슴을 향해  
저렇듯 싸늘하게 총을 쏘아야 하나요

아아  
귀를 막고 돌아선 해지는 거리에서  
젊음이 지는 거리에서  
오빠 저는 무등산을 보았어요  
뜨거운 산의  
몸부림을 보았어요

(시, 김해화 - 낭독: 이세연)

(Poem by Haehwa Kim, Recited by Seyeon Lee)

## 하늘(역사와 민중)뜻 나누기 Sharing the Will of History and the People

**화두(Theme of Reflection):** "새로운 5.18 광주항쟁 정신으로!"  
"Renewing Spirit of May 18 Gwangju Uprising"

**나눔의 이야기(Today's Shared Story):** 창세기 Genesis 4,9-10; 아모스 Amos 5,24;  
마태 Matthew 5,10;  
청년활동가와 예술가들의 영상과 몸짓  
Multi-media Oral History Performance by Young Adult Artists and Activists

### 창세기 Genesis 4, 9-10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your brother Abel?"  
I don't know," he replied. "Am I my brother's keeper?"  
The LORD said, "What have you done? Listen!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 아모스 Amos 5,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But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

### 마태 Gospel of Matthew 5,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청년활동가와 예술가들의 영상과 몸짓

Multi-media Oral History Performance by Young Adult Artists and Activists

**"새로운 5.18 광주항쟁정신으로"**  
"Renewing Spirit of May 18 Gwangju Uprising"

## 한 마음 한 노래 (시 Poem)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Oh, Gwangju, the Crucifix of our Country"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 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해와 달이 곤두박질 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영터리로 우뚝 솟아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빠앗을 수 없는  
아아, 자유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아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을 뒤집어쓸지언정  
아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아, 온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다.  
더 이상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다.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다.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지원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아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넋을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 어찌지도 못하는구나....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의의 옷자락을 펼쳐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느님의 아들이여.

예수는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 백 번을 죽고도  
몇 백 번을 부활할 우리들의 참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누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아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뼈와 뼈를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아아,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맞추는구나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 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 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난다.

(시 Poem, 김준태 JT Kim 낭독 recitation - 제이윤 Jay Yun)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Song)

임을 위한 행진곡  
Marching for our Beloved

시: 백기완  
곡: 김종률

Dm F

사 . 랑 도명 . 예 도 이 름 도 남김 없 이  
We will leave no - ho - nor, no love, no fame

동 . 지 는 간 데 없 고 깃 . 발 만 나 부 껴  
Our dear comrades have gone, only our flag still waves

Gm Dm A7 Dm

한 평 생 나 가 자 던 뜨 거 운 . 맹 . 세  
We promised to keep struggling on, long - as we shall - live

새 날 이 올 때 까 지 흔 들 리 . 지 말 자  
Until a new day co - mes we shall not be swayed

Gm Dm C F A

세 율 은 흘 러 가 도 산 천 은 안 다  
Streams and mountains re - member, as the years pass by

Gm Dm E E7 A A7

깨 어 나 서 외 치 는 뜨 거 운 합 성  
Awakened spirits are call - ing us as they shout this cry

Dm Gm F A A7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 자 여 따 르 라  
We - keep on marching on, keep - faith and follow us

Dm F A Dm

앞 . 서 서 나 가 니 산 자 여 따 르 라  
We - keep on marching on, keep - faith and follow us *Fine*

\* "Marching for our Beloved" is the Song of Gwangju People's Uprising

##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Our Prayer towards the World

벗들이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벗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아직은 비록 우리가 소수이고  
힘 또한 저들보다 적은 듯하여도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옳지 않은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이므로  
어쩌면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로운 우리 몇몇만 손을 잡고 있다 해도  
결국은 많은 이들이 함께 이 길에 나섭니다.  
내 그대들과 만나면  
오월 나뭇잎처럼 마음 기쁘게 사래치고  
그대들 아름다운 발걸음과 함께 가노라면  
정겨운 물소리에 발목을 담근 듯한 것은  
우리 반드시 승리하리란 솟음치는 믿음 때문입니다.  
벗들이여 그때까지 마음을 잃지 않는  
굳은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그날이 정녕 가벼이 오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오고야 말 그날까지  
굳게 잡은 손 놓지 않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벗들이여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기고 있는 싸움입니다.

아멘 Amen

**세상으로 향하는 5.18 광주항쟁정신**  
**Heading Out to the World with Our Gwangju Spirit**  
청년풍물패와 다 함께 Together Led by Poongmool Procession

"새로운 5.18 광주항쟁정신으로 - 워싱턴스퀘어공원에서의 행진"  
"Renewing the Spirit of May 18 Gwangju People's Uprising"  
- March and Rally around Washington Square Park"

\* 오늘 기도문은 도종환 시인의 시 "벗들이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입니다.